

# 토트넘 구한 손흥민 '택배 크로스'

## 후반 추가시간 낮고 빠른 프리킥으로 극장골 도움...왓퍼드에 1-0 신승

손흥민(30·토트넘)이 새해 첫 경기에서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무패 행진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21라운드 왓퍼드와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다빈손 산체스의 헤딩 결승골을 도왔다.

올 시즌 손흥민의 리그 3호 도움.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만 8골 3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를 포함하면 9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은 후반 51분에 나온 극적인 결승골로 왓퍼드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정규리그 8경기 무패(5승 3무)를 이어가며 6위(승점

33·10승 3무 5패)로 올라섰다.

반면 6연패에 빠진 왓퍼드는 17위(승점 13·4승 1무 13패)에 그쳤다.

토트넘은 전반부터 왓퍼드를 상대로 공세를 펼쳤으나,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전반 19분 해리 케인이 페널티 박스 왼쪽 바깥에서 찬 강한 오른발 슛은 왓퍼드 골키퍼 다니엘 바흐만의 정면으로 향했고, 26분 세르히오 레길론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찬 왼발 슛도 바흐만을 넘지 못했다.

전반 31분에는 왓퍼드의 수비 실수를 틈타 케인이 오른발 슛을 시도한 게 골대를 벗어났고, 9분 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헤딩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반격에 나선 왓퍼드도 후반 9분 조슈아 킹의 슈팅이 토트넘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쉽게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후반 공격 주도권 역시 대부분 토트넘이 잡은 가운데 0의 균형을 한동안 이어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후반 22분 문전에서 백일 슈팅으로 득점을 노려봤으나, 골대를 외면했다.

5분 뒤에는 루카스 모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발리슛이 바흐만에게 잡혔다.

이후 후반 41분경 관중석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는 잠시 중단됐고,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기다리던 득점포는 마침내 추가 시간에 터졌다.

후반 51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찬 프리킥을 산체스가 머리로 마무리해 한 골 차 승리를 매조했다.

경기 뒤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8.1점을 매겼다.

영국 풋볼리더와 스카이스포츠는 7점, BBC는 7.33점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손흥민이 2일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EPL 21라운드 왓퍼드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다빈손 산체스의 헤딩 결승골을 도왔다. 경기가 끝난 후 골을 넣은 산체스가 손흥민을 들어올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자신감 업' 레프트 박경현, 페퍼스 변화 중심으로

## 서브 폼 과감히 바꾼 뒤 맹활약 한국생명전 18득점 등 연일 강타 "기복없는 경기로 팀에 도움될 것"

'상승세'에 올라탄 박경현(25·사진)이 자신감으로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1페퍼스 레프트 공격수 박경현이 최근 공·수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생명전에서 18득점(공격 성공률 44.44%)으로 개인 최고기록을 올렸으며, 새해 첫 날인 1일 인삼공사전에서도 9득점(40%) 및 디그 10회를 기록했다.

박경현은 "한국생명전에서는 사실 개인 기록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다. 그냥 '오늘따라 잘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었다"며 "이기고 싶은 마음도 컸고, 컨디션도 좋았다. 18득점을 올렸더니 놀랐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고 웃었다.

박경현은 최근 자신감 실린 호쾌한 강타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다. 세트도 기세가 오른 박경현을 믿고 볼을 올려주고 있다. 박경현의 공격 점유율은 평균 14.89%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각각 24.16%(29일), 25%(1일)로 뛰었다.

"우리 팀 선수들이 최근 몸도 많이 안 좋고, 경기 일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많거든요. 엘리자베트도 공격 성공률이 시즌 초반보다 떨어지는 경기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요. 제게 볼이 올라왔을 때, 자신있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박경현은 최근 A1페퍼스 변화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시즌 도중 서브 폼을 완전히 바꾸는 과감한 수를 썼기 때문이다.

기존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던 박경현은 이제 플로트(Float) 서브를 구사한다. 스파이크 서브와



(KOVO 제공)

동작은 유사하지만, 볼을 가격할 때 손목을 고정시켜 '끊어 치는' 서브다. 볼에 회전 없이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므로 속도가 느려도 받아내기 힘든 게 특징이다.

그는 "서브 연습 많이 하고 있다. 원래 스파이크 서브만 넣다가, 써 본 적 없는 플로트 서브를 넣다 보니 처음엔 오히려 미스가 많았다"며 "격정과 달리 차츰 적응이 되고 있다. 서브가 잘 맞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박경현은 지금까지 20경기에서 172번의 서브를 시도했고, 46번의 범실을 냈다. 거의 4번 중 1번 꼴이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서브 폼에 익숙해진 뒤로는 범실이 차츰 줄고 있다. 29일 한국생명전에서는 9회 서브 중 범실이 1회에 그쳤으며 서브에이스도 2차례 성공했다.

그는 "시즌 초반에는 서브 부담감이 많았다. 미스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속으로 더 불안해했다"며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때리다 보니 오히려 자신있게 서브가 잘 들어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4라운드 시작된 시점, 박경현은 남은 16경기에서 기복 없이 제 몫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각오다.

"서브뿐 아니라 블로킹, 리시브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팀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브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랠리가 길어질 때면 2단 토스 연결에서 범실이 나오곤 해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이 잘 맞는 플레이를 다듬고 있어요."

박경현은 "경기를 할 수록 더 선수들끼리 호흡도 잘 맞아가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A1페퍼스가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신태용의 인니, 태국 벽에 막혀 스키점프 준우승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 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했다.

인도네시아는 1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20 스키점프 결승 2차전에서 태국과 2-2로 비겼다.

지난달 29일 1차전에서 0-4로 크게 진 인도네시아는 두 경기 합계 2-6으로 완패,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인도네시아는 1996년 시작해 이번이

13번째인 스키점프에서 6차례 결승에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했다.

2019년 12월 부임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선 스키점프에서 조 1위로 4강에 들고 준결승에선 싱가포르를 따돌리며 사상 첫 우승 꿈을 키웠지만, 또 한 번 불발됐다.

반면 태국은 스키점프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6회로 늘렸다. /연합뉴스

#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 생애 첫 월드컵 메달

## 6차 대회 동메달

한국 남자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23·가톨릭관동대·사진)가 생애 첫 월드컵 메달을 따냈다.

정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시굴다에서 열린 2021-2022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6차 대회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1초73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9-2020시즌 월드컵에 데뷔한 정승기는 이로써 생애 처음으로 포디움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정승기의 이번 동메달은 스켈레톤과 봅슬레이를 통틀어 올 시즌 한국 쉘레 대표팀이 따낸 첫 월드컵 메달이기도 하다.

주로 10위권 언저리의 성적을 내던 정승기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 시즌 월드컵 2차에서 4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부풀린 바 있다. 이후 새 차례 대회에서 다시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마지막 날 열린 레이스에서 끝내 입상권의 실력을 입증해냈다.

정승기는 또 올해 2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2018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이언맨' 윤성빈(28·강원도청)을 추월했다.

윤성빈은 1분42초94의 기록으로 17위에, 김



지수(28·강원도청)는 1분42초58로 한국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13위에 자리했다.

시즌 랭킹에서는 정승기가 10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윤성빈과 김지수는 각각 13, 14위에 올랐다.

정승기는 윤성빈처럼 폭발적인 스타트를 앞세워 트랙을 공략했다. 스타트 기록만 놓고 보면 1차 시기에는 1위(4초50), 2차에서는 2위(4초50)를 기록했다.

정승기는 1차 시기에서 2위에 자리했으나 2차 시기 레이스 중반에 잠깐 흔들려 한 계단 내려앉았다.

라트비아 출신의 두쿠르스 형제가 홈 트랙에서 1, 2위를 휩쓸었다.

정승기는 "새해에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내 인생의 첫 포디움이어서 굉장히 감명 깊다.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2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연애비진 로맨스
3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4관	해피 뉴 이어
5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6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연애비진 로맨스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7관	해피 뉴 이어, 리틀 백파이어 매트릭스: 리저렉션
8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